

120mm 온다더니 0.7mm...오락가락 ‘극단 예보’ 믿어도 되나

광주시상청 6~7일 비 예보 큰 차이...밤새 긴장 수해 주민들 피로 호소
지난달엔 20~80mm 예보했지만 426mm 폭우... ‘중계’ 넘어 잇단 ‘오보’
신뢰도 하락 속 주말 또 120mm 예보...광주·전남 대책본부 운영 대비

주말에 최대 120mm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시간 당 최대 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호우 대비 비상회의를 열고 예비 특보 발령 여부에 따라 지역 대책본부를 운영기로 하는 등 대비 태세에 나섰다. 하지만 연일 예보가 빗나가면서 광주·전남 시민들은 “이번에는 (예보가) 맞나”며 기상청 예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기상청에 묻느니 주민들 무릎 찌는지 여쭙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들린다. 극한 기후가 잇따르고 급작스런 기후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 ‘예보’가 아닌 ‘중계’, ‘예보’가 아니라 ‘오보’라는 등 기상청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최근 집중 호우 과정에서 보여준 기상청 예보는 ‘오보’ 수준이었다. 당장,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6일일부터 7일 오전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었다. 새벽 시간대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서 시민들은 긴장한 채 밤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실제 내린 비는 단 0.7mm에 그쳤다. 기상청은 7일 새벽 4시 30분 ‘단기 전망’을 발표할 때도 “오전 9시까지 5~20mm 비 내리는 곳 있겠다”고 예보했었다. 실제 강수량은 0mm,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아예 틀린 예보를 낸 이유를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이 더 깊게 남하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치우쳐져서 강수대가 약화됐기 때문에 비가 적게 왔다”고 해명했다.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건조한 공기 사이

수증기 통로에서 강수대가 발달하는데, 당초 남쪽으로 깊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됐던 강수대가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강수대가 급격히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럼 왜 예보할 때는 몰랐을까. 기상청은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애초 슈퍼컴퓨터 예측에 들어 있었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기상청이 오보를 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 기상청은 광주 지역에 20~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으나, 실제로는 426mm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이 때 기상청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오전 10시에 뒤늦게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가 단 10분만에 호우경보로 상향 발령하는 등 중계 수준의 예보를 했다. 기상청은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에도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대 30~50mm, 남해안과 지리산부근에 시간당 최대 50~80mm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으며, 예상 강수량도 80~150mm로 내다봤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인 오후 7시께부터 무안군에는 시간당 142.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오후 7시 50분이 돼서야 뒤늦게 예상 강수량을 100~200mm로 조정했다. 원인 분석도 오락가락했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지난 3일 강수 원인으로 단순 저기압 영향을 꼽았으며, 태풍과 연관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폭우가 내린 이후인 지난 4일에는 “태풍 꼬마이에서 약화된 저기압 수증기가 유입돼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말을 바꿨다. 상황이 이렇자 기상청 예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17일, 지난 3일 잇따라 수해를 입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상청의 오보로 긴장해야 할 때는 안심하고, 안심해야 할 때는 긴장하고 있어 도 움은 안 되고 피로만 쌓인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문종준 광주시 북구 신안동 수해대책위 추진위원은 “비가 많이 온다고해서 주민들이 만반의 대비를 하고 덜덜 떨며 밤을 지냈는데, 빗방울도 안 날려서 허탈했다. 주민들은 ‘재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완전히 틀린 정보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기상청에 묻느니 주민들 무릎 찌는지 여쭙는 게 낫겠다”고도 했다. 기상청은 과거에 발생 빈도가 적었던 극한 기후가 잇따르고, 기후 변화를 시시각각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 최근 예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예측 결과들을 출력한 뒤 예보관들의 논의를 통해 예측 결과들을 분석,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예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극한 기후의 발생 가능성, 과거에 비해 높아진 해수면 온도 등이 슈퍼컴퓨터에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예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 또한 슈퍼컴퓨터 예측 결과에 포함돼 있었지만, 다른 예측 결과에 비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작은 오차가 큰 차이를 불러일으켜 완전히 다른 날씨를 보이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날씨 예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7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고 인근에 지난날 내린 극한 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위) 동림동의 천변에 극한호우에 밀려나온 야구장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나명주기자mjna@

또 ... 영암 대불산단에서 근로자 추락사

공장 지붕 보수하던 60대 참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않고 작업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서 공장 지붕을 수리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최근 대불산단 내 공장 곳곳에서 고소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영암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소재 공장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10여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지붕 보수 전문업체 소속 작업자로,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작업자 5명과 함께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PVC 재질의 채광창(선라이트)을 밟았다가 채광창이 파손되며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주변에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17일에도 대불산단 내 한 업체 지붕에서 40대 근로자가 환풍기를 옮기는 작업중 플라스틱 환기창이 깨지면서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이후 바로 하루 뒤인 18일에도 대불산단 내 지붕개량공사 중 채광창이 깨지며 재해자가 4.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4월 16일에는 대불산단 내 또 다른 공장에서 태양광 수리 작업중 작업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김진아 기자 jiggi@kwangju.co.kr

광주 양산동 축산물 판매점 화재
점포 4곳 불타...50분 만에 진화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축산물 판매점에서 불이 났다. 7일 북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북구 양산동의 삼호축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 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층짜리 건물 내 1층 점포 1곳, 2층 점포 3곳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의 점포에서 불이 시작돼 2층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소방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금타 공장 해체 때 소음·분진 대책 세워주요”

광산구 주민 촉구...금타측 “실시간 대기질 등 측정 등 피해 최소화”

광산구 주민들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건물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광산구 이야기꽃 도서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건물 해체 작업을 실시하는 시공사를 상대로 분진과 소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주민은 “화재로 분진 피해를 보았는데 철거 과정에서 분진 피해가 발생할지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시행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주민들은 또 5m 높이로 계획된 가림막을 높여 소음을 막아달라고 했고 화재 현장에 남아있는 환경오염 물질과 건축 폐기물을 구분해 폐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분진과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

도록 실시간으로 대기질과 소음 정도를 측정할 것”이라며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정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전날 불이 난 광주공장 2공장 정련동 해체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11일 철거 시작을 목표로 현재 가림막을 설치 중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은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